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2025년 실내흡연실 폐쇄

정부가 초강력 금연 대책을 내놓으면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위원회를 열고 현재 일정 면적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금연구역 지정을 2023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담뱃갑 경고 그림을 한층 키우는 방안을 담은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한국의 흡연율이 2017년 기준 38.1%로 터키, 라트비아, 그리스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로 여전히 높은 데다 청소년 흡연율이 2016년 6.3%에서 지난해 6.7%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따른 대응책 마련 차원이다.

이번 대책에는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력한 간접흡연 차단 정책이 담겨 있다. 현재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과 일부 공중 이용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2021년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 금연 적용이 확대되고 2023년엔 모든 건축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025년에는 실내 흡연실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담배 광고·판촉 행위 규제도 강화된

다. 내년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이 현행 담뱃갑 전체 면적 중 50%에서 75%로 늘어난다.

다만 문구 면적(20%)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고 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고 그림과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을 표준화함으로써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도 도입한다.

표준 담뱃갑은 담배 제품에 대한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호주, 프랑스, 영국 등 8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하나 초콜릿 향을 풍겨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가향 물질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전자담배와 껴련형 전자담배 전용기구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붙이고 이들 기기를 광고하거나 판촉하는 것도 금지된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에 든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소매점 안에서 담배 광고를 할 때는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한 크기로 금연 광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나 동물 캐릭터도 담배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랑의 매' 금지 부모 '체벌권' 삭제

한국 정부가 민법에 허용된 부모의 체벌권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제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 '훈육'이나 '사랑의 매'란 이유로 일부 허용했으나,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민법에 허용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부모가 자녀를 혼낼 수는 있어도, 육체적 고통을 가져다주는 행위(회초리 등 폭력이나 체벌)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간 가정에서 이뤄지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민법상 징계권이 좌우할 때가 많았다.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특별법은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친부모가 폭행하면 징계권이 인정되기에 형이 줄거나 무죄가 내려지기도 했다.

학업 문제로 든 회초리나, 부모에

게 욕설한 아이에 대한 폭력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대표적이다.

스웨덴 등 54개 국가에선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일찍 금지했으며, 일본도 최근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를 법에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정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고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법조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어지고, 대중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에서 '사랑의 매'란 명목으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가 사라지고, '내 아이니까 때려도 된다'는 인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아이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민간에 맡겨왔던 아동학대 조사나 위기가동 보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출생신고도 없이 보호 사각지대에 빠지는 아이들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성장기에 제대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놀이 혁신'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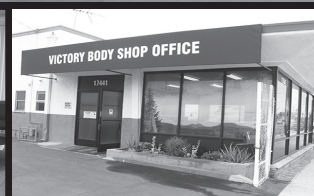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